

詩經研究(5)

天台山人

六, 郭沫若氏의 年代推定

中國의 文豪 郭沫若氏는 일즉 九大 醫學部 在學시절에 詩 三百篇속에 가장 精髓인 四十篇을 뽑아서 白話로 번역하여 卷耳集이라고 命名하였다.

(註) 郭沫若氏는 四川省 出生으로 일즉 九대를 마친後 創造社에서 活躍, 蔣介石의 北伐成功時에 從軍하여 政治部에 活動하다가 蔣氏가 淸共할 때에 日本에 亡命하여 一方 麥克昂의 筆名으로 創作에從事하는 外에 中國 古典의 歷史科學的 研究에 沒頭하고 있다. 그의 著「中國古代社會研究」는 이 方面의 研究에 큰 波紋을 던졌다. 여기 쓴 議論도 全部 그 著 97-215의 사이에서 추린것이다. 要點은 다음과 같다.

1, 周初까지도 母系社會요 氏族社會에서 奴隸社會에 들어오는 때가 되기때문에

大雅「綿」篇 第一章에

「古公亶父, 陶復陶穴, 未有家屋」

이라고 한것은 周文王의 祖父 一代가 아직도 穴居野處하고 있는것을 證함이에요

「古公亶父, 來朝走馬. 率西水滸, 至于岐下. 爰及姜女, 聿來胥宇」(綿二章)

라고 한것은 文王의 祖父 古公이 아직도 一個의 遊牧者로서 水草를 따라 말을 타고 岐山아래까지 와서 姜姓 쓰는 女酋長의 남편이 되었으니 母系社會의鐵證이 된다는것이다.

文王의 夫人인 武王의 母親은 아들이 百兄弟나 되길래 大雅思齊篇 第一章에 「大姒嗣徽音, 則百斯男」

이는 아무리 詩人의 誇張이라 하여도 四五十 以上이 되었길래 「百」이라고 概稱하였을것인데, 到底히 一母 百子를 낳기는 不可能할것이니 文王의 多妻에因하거나 亞血族結婚(panalua)에 因한것일것이다. 우에 말한 文王의 祖母

妻女까지 一個의 女酋長이었다면 더욱 後者が 近理하다 더구나 「文王이 열 세살에 伯邑考를 낳고 열다섯살에 武王을 낳았다」하니그러면 이도 亞血族 制度 아니고는 說明할수 없는 일이다.

2, 殷末은 牧畜이 發達된 時期요 農業도 벌써 相當히 發現할 때다. 아마 周家가 가장 일찍 農業을 發見한 民族이었든것 같다. 詩經에서 農業에 關한 資料를 抄出하면

大雅生民扁…

「厥初生民 時維姜嫄 生民如何 克禋克祀 以弗無子 履帝武敏歆 攸介攸止 載震載夙 載生載育 時維后稷」

이는 中國 農業의 始祖요 周家の 元祖라고 하는 后稷을 韻文으로 읊은 史詩도 거기서 傳說의 原始性이 전혀 흠어지지 아니한것을 본다.

『周室最初의 女酋長 姜嫄이 아이가 없어서 上帝에게 빌어 上帝의 지나간 자취를 밝고 孕胎하여 낳아서 路上에 버렸다. 母系社會에 男子를 賤待하는習俗에서였다. 그 牧畜이 繁盛한 행길 우에 牛羊들도 밝지 않았다. 어름우에 두어도 새들이 保護하였다. 이리하여 자라난 后稷은 코, 보리, 오이를 發明하여 그의 母家를 占有하였으니 『即有郤家室』이 이것이요 그후 『秬, 秠, 麋, 芑』를 收穫하여 「上帝居歆 胡臭亶時」하였다는것이다』

傳說 그대로 農業發見過程의 信史가 된다. 周初가 아직도 原始社會를 相距하기 멀지 아니하므로 祖先을爲하여 ■節한 곳이 적다.

大雅綿扁은 우에서 말한 古公이 水草를 따라 岐山에 온 이야기라 하였거니와 岐山에 온 古公은

「周原膴膴 萋茶如飴 爰始爰謀 爰契我龜 曰止曰時 築室于茲」

그 土地의 肥饒한것을 보고 龜卜으로 吉兆를 알고거기서 安住하게 되어

「迺疆迺理 迺宣迺畝 自西[自]東 周爰執事」

農事神을 하게 된것이다. 그후 土木을 일쿠고 四夷를 征伐하여 天下의 三分之 二를 同化하고 「實始剪商」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農業의 發達을 본 「周」는 原始社會에서 國家形成의 過程에 이른 것이다.

大雅公劉扁은 后孫의 會孫 公劉가 幽이 定居하던 때를 노래 한것이니

第一節은 公劉가 밭을 갈고 보리를 심어 부지런히해서 糧食을 橐囊에 넣고 弓矢干戈를 가지고 다른 地方을 開拓하려 함을 말하였고

第二節은 胥(於胥斯原)의 地方을 開拓하여 生活에 餘裕있음을 말함이다. 아직도 銅器보담 石器, 石刀를 많이 썼다.

第三節은 幽谷에 옮겨 京師를 일렀다 함이요.

第四節은 京師에 있어 날마다 發展하여 「君之宗之」로 酋長이된 이야기요.
第五節은 宗長이 된후 「三單」의 軍警을 組織하여 정말 強大하게 되는것이
요.

第六節은 幽에 살면서 「取厲取鍛」-渭水를 건너 鐵鋼, 砥石을 彩取하여 田野
를 開拓하고 더욱 繁庶해지는것이다.

鐵의 發見! 이것이 周初 農業發展과 國家形成의 主要한 原因이 된다.

一般이 周詩에는 農事를 읊은 詩가 많다.

幽風……七月

幽雅……楚茨, 南山, 甫田, 大田

幽頌……思文, 臣工, 噫嘻, 豐年, 載芟, 良耜

「七月」扁에 나오는 農夫를 보면 벌써 奴隸로 化한周初의 農夫들이 一切을
公衆를 爲하여 犧牲하고慘憺한 生活을 계속하는 過程을 그렸다. 사나이는種
田築하고 女子는 養蠶織布하고 自己는 「舞衣無褐」하면서도 公家에 貢納하
여야 한다. 아닌 때에도사냥하고 牛羊을 죽여 公衆에 드려야 할다. 蟋蟀이
床頭에 올 때에 初夜權을 빼앗기도 했다. 流火一節이 「奴隸」가 아니고 무엇
이나. (此間三行略)

「甫田」扁은 不耕而食하는 公子가 農人에게는 陳腐한것을 먹이며 空然히
農夫의 功德만을 찬양하는것이다. 「會孫之庾, 如抵如京」-農民은 ××해도
공자의 창고에는 쌀이 가득하였다. 「報以介福, 萬壽無疆」은 잘××해 먹으
니 萬歲(?)만 누리라는 뜻이다.

「大田」扁은 小農生活을 읊은 詩이다. 「雨我公田, 遂及我私」-아마 後代儒
家の 理想인 井田制의 證明이다.

그리하여 奴隸國家를 이룬 「周」는 土木을 일크기 始作하니 靈臺扁에

「經始靈臺……庶民子來」

가 그것이다. 小雅出車扁에

「天子命我, 城彼朔方」

은 築城의 役을 말함이다. 小雅正月扁에

「民之無辜 並其臣僕」

小雅天保扁에

「羣黎百姓 徧爲爾德」

庶民, 臣徧, 羣黎, 黎民 이것이 奴隸의 通稱이었다. 아마 百姓을 「黎」 「黔」
이라고 한것은 原住民(馬來人, 撈撈人)의 黑面孔 銅頭鐵額을 가르침이 아닐
가? 「民靡有黎(柔柔) 周餘黎民(雲漢)」도 모다 그 「黎」를 奴隸로 한것이
아닐가? 「民」이란 글자도 古字의 原義는 그 一目에 刀함이니 아마 奴隸의

一目을 盲하는 習俗이 있었든 모양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征役に 나아가 牛馬와 같이 使用되었다. 邶風擊鼓扁에

「擊鼓其鏜，踊躍用兵。土國城漕，我獨南行」

이는 衡國의 人民이 陳, 宋을 征伐할적에 읊은 詩니 一은 工, 一은 農, 一은 征에 從事하였든것을 示唆하여 있다.

周公이 東征한것도 殷民(奴隸)의 反抗에 依함이니 奴隸制를 完成한 그는 刑을 嚴히 하여 三令五申으로 다스리고 「周書」의 大部分은 그들을 訓諭한 것이었다.

3, 그리하여 原始社會의 信仰生活의 中心이 되던 庶物崇拜(多神敎的)도 奴隸制의 成立後 地上權力의 統一과 함께 天上의 神秘도 統一하고야 말고 地上에 國家成立한후 天上에 天堂이 생기나니

「文王陟降 在帝左右」(大雅文王)

「三后在天」(大雅下武)

詩經의 雅頌은 宗教的 意味에서 舊約이나 「리그베다」와 같다. 詩書中の 上帝는 完全히 人格神이요 天은 良知良能한 人格的存在의 統一體이다.

「履帝武敏歌……居然生子」(大雅生民)

上帝가 아이를 낳는다고 본것이다.

「天命靡常」(大雅文王)

「天難忱斯 不易維王」(大雅大明)

天命을 固定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하여 書經, 周易과 함께 天은

1, 人格神으로서의 存在

2, 神權政治의 主張

3, 折衷主義로 辯證法的進化를 消滅하였다

當時思想의 全面的 表現인 洪範一扁(書經) 드 小雅小旻扁에

「國雖靡止 或聖或否 或哲或謀 或肅或艾」

라는 句 속의 「聖, 哲, 謀, 爾, 艾」 五子가 洪範속의 五作과 完全히 暗合함을 보면 小旻은 洪範과 함께 周幽王以前的 詩일것이 分明하다.